

『전선문학』에 나타난 슬픔의 배제와 증폭*

정명중(전남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사제들의 출현 |
| 2. 풍경으로서의 죽음 | 5. 나오며 |
| 3. 세계의 이원성 |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1950년대 한국전쟁 기간에 발행된 잡지 『전선문학(戰線文學)』¹⁾에 수록된 텍스트들을 이른바 감성정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그 텍스트 안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적 자질이 배제되거나 혹은 역으로 그것이 증폭되는 두 개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감성정치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범박하게 말해서, 그 의미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성이나 지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적 논리 또는 수사학적 전략쯤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지 싶다.

그러나 필자가 의도하는 감성정치란 정치공학 차원에서 대중의 감성을 소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1) 한국전쟁기 『전선문학』의 성립 배경 및 참여 작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 제28집, 개신어문학회, 2008, 193~201면 참조할 것.

구한다는 피상적인 책략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일정한 목적 아래 인간의 특정 감성을 관리·조작·배치·분절·배제·포섭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technic)들의 총체이다.²⁾ 근대적 의미에서 권력이 한 사회에 또는 집단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특정한 감성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감성은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다.

한편 이 글의 키워드는 슬픔이다.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또는 그것의 목적이나 양상을 그 어떤 술어를 동원해서 서술한다 해도 결국 전쟁의 폭력성이 낳은 실제적 경험은 슬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슬픔은 상실의 체험을 전제한다. 곧 그 상실을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수동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복구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만큼 극적인 플롯³⁾도 없다.

2) 물론 이러한 정의는 잠정적이며, 게다가 극히 논쟁적일 수 있음을 시인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굳이 사용하려는 이유는 파시즘이 대중의 감성을 조작·왜곡하거나 동원하는 방식 혹은 그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1940년대 일제하 『국민문학』을 고찰한 필자의 논문(줄고, 「파시즘과 감성동원 - 일제하 '국민문학(國民文學)'에 대한 고찰」, 『호남문화연구』 제4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에서 사용했던 '감성동원'이라는 용어를 더 자각적으로 예각화해 보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이를테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각각 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할당하는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극복하기 위해 '이성의 정치' 대신에 감성정치를 대응하고자 했던 논의(홍성민, 「일상성과 감성의 정치학 - 네그리의 다중(多衆)을 넘어서」, 『프랑스문화연구』 제19집, 프랑스문화연구회, 2009.)나 감정이 개인과 집단의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시기에 특정 감정이 구성되는 과정을 감정정치라는 맥락에서 살핀 논의(김옥선, 「『전선문학』에 나타난 감정 정치」, 『인문학논총』 제2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필자가 의도하는 감성정치는 사회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감성이 구성되거나 구조화되는 방식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권력의 지배와 통제의 기술로서 감성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아무튼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해 본다.

3)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즈 래저러스, 정영목 역,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그렇다면 왜 하필 『전선문학』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선 그것은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된 중국문학기관지 중 가장 대표적인 『전선문학』은 “국가를 신성시하고 그에 기반 한 적개심을 통해 국민을 국가에 동원하는 침병 역할”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한국문학의 문학 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반공 호국문학의 구조를 전쟁 전과 그 이후 한국문학의 중요한 결절점”⁵⁾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양상은 단지 전후 한국문학의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공주의의 전 국민적 생산과 내면화라는 문제 그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테면 20세기 한국문화(아니, 21세기인 오늘날의 문화까지를 포함해서) 총력전 체제라는 프레임⁶⁾으로 놓고 보면, 『전선문학』은 이미 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소의 본질주의적인 표현이 허락된다면, 한국의 사회와 감성을 구성하고 구조화하는 집요저음(執拗低音)의 중요한 마디라고 할 수 있다.

2. 풍경으로서의 죽음

『전선문학』을 읽다보면 슬하게 마주치는 용어가 바로 총력전이다. 당시 문인들은 종종 총력전 대신 ‘멸공성전(滅共聖戰)’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

119~120면.

- 4) 김진기, 「반공호국문학의 구조」, 『상허학보』 제20호, 상허학회, 2007, 349면.
- 5) 같은 글, 353면.
- 6)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에 값한다. 즉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과 같은 열전(熱戰)과 여기에 평시를 항상 전이상태로 만들었던 냉전(冷戰)까지 포함하여 총력전으로 집결된 20세기 세계사 전개에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허은, 「20세기 총력전 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주의」, 『한국사연구』 제15호, 한국사연구회, 2010, 231면.) 아울러 한국 사회를 시스템 사회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총력전 체제와 도덕적 절대주의를 분석한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월드컵」, 『당대비평』 제20집, 생각의 나무, 2002도 참조할 만하다. 특히 그는 총력전의 세기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가 그 영향과 흔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력전(總力戰, total war) 개념은 제1차 대전 당시 프러시아 군대를 이끌었던 퇴역장군 루덴도르프(E. F. Ludendorff)가 창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수단의 연장⁸⁾이라는 식으로 전쟁을 정의(제한)했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다.

총력전이란 궁극적으로 전쟁과 평시의 경계를 무화시켜버림으로써 전쟁을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이념으로 둔갑시켜 놓는다. 비근한 예로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교토(京都)학파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가 주장했던 ‘무(無)의 철학’은 그러한 이념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었다.⁹⁾

한편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총력전을 ‘전쟁형태의 전체주의’라고 재규정한다. 그것이 전체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선전전(宣戰戰)의 전반적인 발생과 관련이 깊다. 즉 전쟁기간에 자타 국민 전체에 대해 자국의 군사행동을 선전하는 것은 정신면에서 군인과 시민 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 그리고 선전과 후방 사이에 있던 구별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생활을 정신적으로 전쟁에 동원하여 참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전쟁이 제도상의 전투원인 군인이 행하는 전투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시민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또 하나의 전투원화해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다음 사태이다. 사람의 내면과 외적 행위의 구별을 없애고 모든 요소를 참전시키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정신은 실제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을 모르는 만큼 경험 없는 전쟁 의욕 덩어리가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경험을 결여한 욕망의 증폭 그리고 전투 경험이 없는 자의 전투의욕은 실태의 가혹함에서 비롯되는 억제의 근거를 내면에 지니지 않고, 그저 강화될 뿐이다.¹⁰⁾

7) 박영준, 「군인과 정치」, 『전선문학』 제1호, 1952, 4, 20면.

8) 클라우제비츠, 허문순 역, 『전쟁론』, 동서문화사, 2011, 43면.

9) 참고로 일본 교토학파의 철학 논의에서 절대성과 초월성으로서의 총력전 이념이 갖는 이율배반을 검토한 것으로 기모토 다케시, 「총력전의 이율배반」, 『역사문제 연구』 제23호, 역사문제연구소, 2010은 참조할 만하다.

10) 후지타 쇼조, 이홍락 역,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 비평』 겨울호, 창작과비

물론 경험을 결여한 욕망의 증폭은 비합리적이다. 선전전을 통해 전투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 『전선문학』의 작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비합리성이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단과 행동을 부르짖는다. 이어 오직 그 길이 주체적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행동만이 “민족적이요 세계적인 더 크고 높을 수 없는 역사적인 주체”¹¹⁾가 되는 길이며, 국민들 스스로가 그 “행동전선 상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¹²⁾ 것만이 유일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들이 촉구하는 행동과 결단 안에는 사태에 대해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지적 계기가 없다.¹³⁾ 어떤 논리도 그 귀결은 하나다. 맹목성이 곧 자율성이자 주체성이 된다. 이를테면 전쟁이 현실의 축소(縮圖)이자 인생의 유일한 절정의 표현이며 동시에 위대한 문학적 소재¹⁴⁾라고 전제한 다음 조연현은 전쟁이 “객관적인 소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¹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 전쟁이 작가의 주체적 인생으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해방 이전 백철 등이 주장했던 소위 사실수리론(事實受理論)¹⁶⁾이라는 기괴한 논리보다 더 나올 게 없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평사, 1995, 410~411면.

11) 김현승, 「조국을 그리며」, 『전선문학』 제1호, 1952. 4, 48면.

12) 이현구, 「문화전선은 형성되었는가」,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4면.

13) 다만 전선을 기행하는 한 작가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곧 “무기만 손에 들면 어떻게 감연히 대적해서 싸우고 죽되 장렬하게 죽을 수도 있다”(최태웅, 「동부 전선기행」, 『전선문학』 제3호, 1953. 2, 86면.)는 식의 자기 파괴적 열망에 가까운 적에 대한 증오의 감정만은 선명하다.

14) 조연현, 「한국전쟁과 한국문학- 체험의 기록과 경험의 형상화」, 『전선문학』 제5호, 1953. 4, 18면.

15) 같은 글, 19면.

16)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바야흐로 발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1937년 중일전쟁을 앞에 두고 백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상이든 아니든 간에 우연도 하나의 공연한 사실인 한에서 우리들은 일치는 그 현실을 수리(受理)해야 할 문제인 줄 안다. 그리고 지식인의 실질적인 일은 그 현실을 수리한 뒤에 오는 문제다.”(백철, 「시대적 우연의 수리」, 『조선일보』, 1938. 12. 2.) 이어 그 역시 맹목성을 주체성으로 둔갑시켜 놓는다. 곧 그는 다음과 같이

주체 앞에 출현한 우연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제 하 백철의 목소리와 한국전쟁기 조연현의 그것은 맹목이라는 점에서 실은 오십보백보다.

결국 경험을 결여한 욕망의 증폭, 비합리성 혹은 맹목성이 일정한 가학적 인 인식의 패턴들을 만들어 낸다. 더불어 타자들의 고통에 눈감거나 그것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잔인성이 시대의 권장할 만한 모럴로 둔갑하고 만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선문학』의 텍스트들에서 개체의 죽음과 같은 유일무이한 사건의 구체성이 소멸되고, 동시에 그것이 추상화되거나 관념의 형태로 고양되는 계기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비석의 단편 「남아출생」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주인공인 작가 ‘현’이 그토록 꺼려했던 셋째 아이의 출생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적 심리의 극적인 반전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심리의 반전이란 조카의 전사로 인한 슬픔을 아들의 탄생이라는 기쁨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기묘한, 아니 오히려 비약에 가까운 의식을 일컫는다.

즉 ‘현’의 의식에서 죽음과 삶(탄생)이 병치됨으로써 불가(佛家)의 윤회설과 같은 종교적 원리가 솟아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조카의 죽음이, 다시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아들의 탄생과 등가로 연결되는(교환되는) 반면, 그 ‘이’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조카의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해도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만 ‘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조카가 전사했다는 기별은 들은 지금에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다는 것은, 소모된 국가의 국력을 그만큼 보충한 것 같아서, 무단히 기뻐던 것이다.¹⁷⁾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한 문제는 하나의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그것이 지금 상태와 다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성질의 정치든 간에 그 현실이 역사적 소산으로서 가능한 구조의 내용을 설정하여 최대한도의 유리한 요소를 택하고 그 요소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필연적인 것을 만드는 곳에 그 시대의 현실을 살려내는 최상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백철, 같은 글, 『조선일보』, 1938. 12. 4.)

국력이라는 추상적인 척도, 아니 매우 익숙한 말로 인적 자원이라는 계량적 기준으로 보면 ‘현’에게 어떠한 손실이나 이윤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상 손실된 부분을 이윤으로 메웠기 때문에 양적 변화가 없는 제로 상태인 셈이다. 이를 두고 비율 또는 등가교환의 논리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비대칭적이지 않다. 그것이 설사 죽음과 삶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생각해야(믿어야) 한다. 여기에 이 논리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깃든다. 이 비율의 논리를 확대하면 결국 다음과 같이 죽음이라는 사태가 마치 양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게다가 이론상 하자가 없어 보이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를 사역이라고 따진다면 한국에 비하여 이십 배나 많은 셈이 된다. 따라서 중공군 이십 명에 대하여 한국군 한 명이 그 비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군 한 명이 희생당하는 것은 중공군 이십 명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이 되지 않는가.¹⁷⁾

위의 인용문은 박영준의 단편 「김장군」에서 부대를 통솔하는 한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 ‘김장군’이 부하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다 생각해낸 것이다. 이를 두고 부하들에 대한 지휘관의 가혹한 애정으로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튼 한국군 1명의 목숨은 중공군 20명의 그것과 바꿀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등가 교환의 논리에 의해 죽음은 사물화 되고 추상적 관념으로 변모한다. 물론 그와 같은 논리는 쉽게 무너진다. 설사 자신의 목숨이 20명의 그것과 맞바꿀 수 있다고 한들, 당장 죽어야 하는 것은 양화되고 혹은 개념화된 것으로서의 군인 일반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이’ 나[自我]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가 유일무이함이며 다른 말로 단독성이다. 그것은 일반성 속의 특수성이 아니다. 어떠한 것과도 교환이 불가능한 비대칭성 그 자체이다. 생사를 초월한다거나 거룩한 죽음이라는 식의 내러티브는 ‘이’ 나로부터는

17) 정비석, 「남아출생」, 『전선문학』 제4호, 1953. 3, 80면.

18) 박영준, 「김장군」, 『전선문학』 제4호, 1953. 3, 58면.

결코 솟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를 지우려는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의 수사 쪽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경험을 결여한 욕망의 증폭 그리고 이 등가 교환의 논리가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식이 발생한다. 곧 어떤 치명적인 사태가 '나'와 어떻게 해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른바 '너[他者]'의 죽음은 권장할 만한 것이고, '나'는 그 사태를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행위로 규정하거나 묘사해 줄 선의가 있다는 식의 안도감 같은 게 지배하게 된다.

전쟁 동원을 독려했던 문인들의 내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규 전투원과 마찬가지로 의욕적으로 전투에 문학을 무기로 참여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작가들에게 전쟁은 일종의 스펙터클이다. 그 안에서 타자의 고통이나 슬픔이 포착되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서 당시 전쟁기의 문학적 경향을 대략 6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방기환의 논의를 살펴보자. 6가지의 경향 중에서 그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게 바로 “현실이 빚어내는 비극을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안이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센티하게 같이 슬피한” 작품 계열이다. 대표적인 예로 곽하신의 작품 「처녀애장」을 들면서 “섭섭하지 않을 수 없다”¹⁹⁾는 식으로 혹평한다.

반면 그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비참하다는 이 현실을 따뜻한 선의(善意)로 받아들임으로써 안심입명(安心立命)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최인욱의 작품들을 예로 들고 있거니와, 그것들에 대해 “뻗속 깊이 공감”²⁰⁾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오컨대 슬픔을 슬픔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것을 ‘따뜻한 선의’로 바꾸어서, 이른바 ‘안심입명’의 단계까지 고양시킨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슬픔이 곧 슬픔이 아니어야 한다는 선문답 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셈이다.

한편 안심입명이라는 표현이 이색적이다. 이것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해방

19) 방기환, 「진통기의 소산-상반기의 작단」, 『전선문학』 제6호, 1953. 9, 69면.

20) 같은 글, 70면.

된 상태, 곧 아무것에 의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전히 평정한 편안함에 도달한 마음의 상태를 대략 의미한다. 이를테면 고대의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apatheia)나 불가에서 최고의 경지로 일컫는 열반(涅槃)과 같은 것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과연 그런 경지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슬픔이나 그와 관련된 자질은 이제 일종의 금기처럼 돼버렸다는 점이다. 관건은 작가들에게 슬픔을 다른 것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따뜻한 선의'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러한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 티끌도 없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태양을 받아 그의 얼굴은 좀 더 빛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 그의 표정에 갑자기 가슴 속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먼 그가 보이는 것처럼 말한, 그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정말 맑게 갠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또 그 산에 새파란 소나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맑고 고요한 풍경입니다. 나는 색안경 밑의 그의 눈을 다시 한 번 결눈질 해 봤습니다. 분명히 감겨져 있는 두 눈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눈을 감은 그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보지 못했을까? 떠져 있는 내 두 눈을 가리게 한 안개는 무엇이었을까요.²¹⁾

위의 인용문은 전숙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전장에서 실명당한 한 상이군인을 우연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의 감회를 기록한 수필의 일부분이다. 요점은 이렇다. 두 눈을 상실한 그 군인조차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왜 자신은 그럴 수 없었던가, 하고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어 군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촉발되어 작가 자신도 비로소 맑고 고요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어떤 감격스러운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그 군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신이 장님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곧 우리들은 “온갖 진실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또 사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눈이 없는 존재들”²²⁾이다. 그 군인보다 실은 우리가 도

21) 전숙희, 「어떤 상이군인」, 『전선문학』 제4호, 1953. 3, 55면.

22) 같은 글, 55~56면.

덕적으로나 미적으로 더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를 부끄럽고 열등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각을 과연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우열에 대한 자각은 자기기만의 산물이다. 이 기만을 다른 말로 ‘풍경’이라고 한다. 작가는 사실상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타자에 대해서는 냉담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그는 타자(상이군인)의 구체적인 고통이나 상실의 슬픔 같은 실감 ‘그 자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형적인 내적 인간(inter man)²³⁾이고, 낭만파적인 전도와 잔인성을 바탕으로 그 군인에게서 ‘맑고 고요한 풍경’을 목격(=발명)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자신은 열등하다는 고백은 뒤집어진 안도감의 표현일 뿐이다. 타자의 고통이나 슬픔이 나오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말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의식이 풍경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너의 고통과 죽음의 자취들이 나에게서 무해한 것이기에, 너는 우월하고 나는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의가 있다!” 이런 형태의 의식을 두고 공감 혹은 동정이나 연민이라고 불리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선의’의 정체이고 사악함이다.

이 따뜻한 선의에 의해 전쟁을 구성하는 의미들의 집합에서 슬픔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질들은 모조리 말소된다. 대신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예컨대 박화목의 「피난길에서」라는 시에서 피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서러움은 “크나큰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한 실상 작은 / 보상”²⁴⁾이어야 마땅하다. 또는 인민군에게 밀려 퇴주하는 길에 집에 들른 한 장교가 자신의 아내에게 권총을 빼들며 민족과 조국의 이름으로 동반자살하자고 권유했을 때, 그 즉시 아내는 “당신 손에 죽는 것이 행복이에요.”²⁵⁾라고 읊조리는 게 옳

23)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36면.

24) 박화목, 「피난길에서」, 『전선문학』 제1호, 1952. 4, 36면.

25) 김송, 「중부전선」, 『전선문학』 제1호, 1952. 4, 57면. 의아한 것은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왜 같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없다는 것이다.

다. 결국 전쟁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고 행복이라는 거의 신비에 흡사한 결론에 이른다.

『전선문학』을 구성하는 언표들의 빈도수를 통계로 측정한다면, 아마도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가장 으뜸일 것이다. 전쟁은 더 위대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내일의 희망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적인 의지로서 진진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²⁶⁾가 전쟁 속에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족 상호간의 살생과 무자비한 파괴”조차도 “위대한 미”로서 표출되어야 한다. “전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희생적인” 우리들은 기꺼이 “즐거운 제물(祭物)”²⁷⁾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사 전장에 나가 이름 없는 군인으로 전사하더라도 “혹속에 묻히는 그때부터”, 바로 “영원한 것의 뿌리”가 되고, “장엄한 산령”²⁸⁾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덕분에 즐거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즐거운 전쟁에 대응하는 문학은 기본적으로 “명량(明瞭)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탄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민족의 행복,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싸웠다는 위대한 기쁨을 갖게”²⁹⁾하는 문학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전쟁은 명량한 모험들로 가득 찬 가능성의 영역이기조차 하다.³⁰⁾

지금 당신은 몸소 처참한 죽음과 생과, 일체의 섭리를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의 모색하는 관망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모색하는 군상 중에서도 자아발

26) 박두진, 「나의 독어록(獨語錄) - 시, 신앙, 생활, 세계」, 『전선문학』 제3호, 1953. 2. 69면.

27) 이무영, 「전쟁과 문학」, 『전선문학』 제5호, 1953. 4. 6면.

28) 천상병, 「무명전사」, 『전선문학』 제5호, 1953. 4. 33면.

29) 이무영, 앞의 글, 7면.

30) 한 문학좌담회에서 김중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쟁이란 문학에 좋은 기회를 주기까지 한다고 봅니다. 일본문인들이 이 땅의 작가를 부러워한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일 것입니다. 진실로 왕성한 문학정신이란 항상 모험에 가까운 방식으로 심각한 체험을 몸소 겪으려는 의욕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이란 하나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신춘문학좌담회」, 『전선문학』 제3호, 1953. 2. 99면.)

견은커녕 자아상실에 가까운 무리가 허다한 지금 당신의 그 건강하고 끊임없는 지향의 템포가 꺾이나 기쁜 일입니다. (...) 투철한 강한 정신과 발달한 건강상태와 (...)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한 위치에서도 이렇게 허약한 속에서도 인간은 역시 믿음직한 것입니다. 역시 새로운 지향 모색은 길은 아득하면서도 꺾이나 즐거운 미래에 대한 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만취가 되어 일체를 잃고 암담한 세계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명일이라는 태양에 다시 약동하는 힘과 기쁨을 갖는 것과 같이 명일이라는 미래에 새로운 예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 인간 본래의 영원성의 지향이란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위치에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³¹⁾

위의 인용문은 이덕진이 사선에 서있을 한 익명의 장교인 'R형'에게 보내는 서한의 형식으로 꾸민 글의 일절이다. 영원성을 지향하는 한 인간에 대한 각별한 믿음 또는 이상적인 군인 상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위 인용문의 요점은 실은 매우 간명하다. 전장에서 죽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예감으로 명랑하게 죽어라, 단지 이것이다.

3. 세계의 이원성

이제 더 이상 타자의 고통과 슬픔을 배제하고, 혹은 이러저러한 자질들로 치환해 버리는 당시 문인들의 사악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더 근원적인 정신의 기획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먼 훗날에도 존속하고 반복하게 될 그 기획들을 포착해야 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세계의 이원성(二元性)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현세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가없는 증오와 저주이다. 광신적인 열정과 광기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교전 중인 상태에서 자신을 선(善)으로 그리고 적인 상대방을 악(惡)으로

31) 이덕진, 「고지(高地)에의 정회(情懷)」, 『전선문학』 제6호, 1953. 9. 96면.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컨대 이북의 김일성 정권은 소련 크렘린(kremlin)의 괴뢰(傀儡)이고, “당의 지령이면 어미도 능욕”하는 “패악무도(悖惡無道)한”³²⁾ 집단이다. 게다가 “양의 꺾질을 뒤집어 쓴 이리”들의 “바버리즘”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직된 범죄의 시스템”³³⁾이기도 하다.

문제는 거의 식상하다싶은 선악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심오함을 가장한 채, 선악의 대립으로부터 파생되는 더 끈질길 이분법이다. 바로 정신 대 물질 또는 영혼 대 육체의 대립이라고 할 것인데, 당시 이러한 마니교(Manichaeism)적 이분법에 가장 충실했던 이가 바로 팔봉 김기진이다.

우선 그는 「군인과 종교」라는 글에서 군인은 곧 신앙인(종교인)이다, 라는 다소 야릇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정신의 영원성 또는 불멸성을 강조한다. 육체란 정신이 “잠시 빌려 들고 있는 몸뚱이”³⁴⁾이고, “생명이 구상화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정신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 생명의 주인인 정신이 치른 것이고, 바로 이 정신이 제3차로 세계전쟁을 좁은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다는 다소 허황된 논리가 도출된다. 결국 한국전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의 자유와 인류의 평등을 수호하는 진영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물질의 소산이라는 물욕에 굶주린 아귀 떼”³⁵⁾의 투쟁이기 때문에 전선의 병사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초개와 같이 버릴 것을 주문하는 것³⁶⁾으로 글을 맺고 있다.

그의 육체성 또는 물질성에 대한 증오는 비단 외부의 적(이북)만을 향하는 게 아니다.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진단하기에 당시 한국의 문학적 상황은 비평정신을 상실한 채 “육체적인 분위기의 묘사에서 희열과 쾌락을 추구”하거나 “절망적 도피적인 곳에서 흘러나오는 자아망실”³⁷⁾

32) 유치환, 「전선시첩 : 최후에 웃는 자가 웃나니라」, 『전선문학』 제1호, 1952. 4. 30면.

33) 조향, 「공산문학의 정체」, 『전선문학』 제1호, 1952. 4. 26면.

34) 김팔봉, 「군인과 종교」,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16면.

35) 같은 글, 17면.

36) “생명은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이 생명이 있는 육신은 호국의 꽃으로 산화할지라도 우리의 호국 대의의 정신은 삼천리 권역을 수호한다. 영원히! 영원히!”(같은 글, 17면.)

을 부추기는 퇴폐적인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반 시민의 육체적 생명에 대한 애착이 노골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동물적인 현상”이지만, 그러한 “본능적이며 관습적인 생태”를 “고도의 것으로 양기(揚棄)”³⁸⁾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문학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제 육체적인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착은 저급한 것 또는 동물적인 것이다. 동물적인 것 대신 그는 영성(靈性)계발의 정신이라는 종교적 교시를 연상케 하는 술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영성이란 “총명한 자비(慈悲)의 본체”이다. 그래서 “인(仁)도, 예(禮)도 모두 총명한 자비의 지체(肢體)”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성의 정신이 “사상 미증유의 전란 속에서 고투하는 한국 국민으로부터 발현될”³⁹⁾ 것이라는 식의 메시아주의에 가까운 낙관적이고 명랑한 전망이 출현한다.

그의 명랑한 전망 안에서 전쟁의 가혹함이라든가 상호 살생의 처참함이란 물론 따질 계제가 못 된다. 바야흐로 전개되는 전쟁은 일종의 자비이고 인이자 예이다. 이와 같은 거의 곡예에 가까운 논리에 대해 정합성을 캐묻는 것은 펍 난처한 일이다. 다만 육체적인 것(=물질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저주의 감정만이 선연한데, 그의 선언은 논리보다는 오히려 생리적 공포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낫다.⁴⁰⁾

물론 육체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김팔봉만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오히려

37) 김팔봉, 「전쟁문학의 향방」, 『전선문학』 제3호, 1953. 2, 60면.

38) 같은 글, 61면.

39) 김팔봉, 「정신의 빈곤」, 『전선문학』 제4호, 1953. 3, 5면.

40) 그의 이러한 신앙에 가까운 입장을 꼭 이해할 수 없는 것만도 아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미처 서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에게 체포되었고, 같은 해 7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았다. 결국 사형선고를 언도받고 처형되었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되어있다.(김팔봉, 『인민재판 이후』, 『사상계』, 1960. 6. 참조) 해방 이전 프로문학을 내세웠던 카프(KAPF)의 유력한 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물론을 신봉했던 그에게 이 체험은 아마도 굉장한 트라우마로 다가왔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연상케 하는 물질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것은 그에게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다.

『전선문학』의 거의 모든 텍스트들을 잠식하고 있는 지배적 정서이다. 몇몇 소설들에서 확인할 수 있거니와, 사랑조차도 그것이 육체적인 자질을 포함하는 한, 조국과 민족이라는 더 큰 정신 앞에서 타파되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엄숙주의의 발로이다.

(...)이 민족의 생을 구현시키는 문학이 안이(安易)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민족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문학인이 안이한, 그리고 안가(安價)의 남녀치정의 서술(묘사가 아니다)만으로 능을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학의 대부분은 이 안이의 문학이오, 안가의 문학이라는 것은 필자만의 편견은 아닐 것이다. (...) 요(要)는 같은 연애도 안이한 연애는 곧 안이한 생과 통한다는 말이다.(...)

점심 사먹듯이 하는 연애가 이 땅의 문학의 소재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새의 연애에서는 이 점심을 택하는 정도의 고민도 발생할 수 없다. 한 처녀가 생명과 같다는 입술과 몸을 내어줄 남자를 선택하는데 점심 종류를 택하는 정도의 사색과 고민이 없대서야 우스운 일 아닐까? 이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문학인은 도색문학(桃色文學)에만 몰두하게 되고 매녀(賣女)가 아닌 여성으로서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음주, 댄스, 키스의 교환, 심지어 갖은 추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문학인까지도 나타나는 현상이다.⁴¹⁾

간단히 말해 오늘날의 문학은 ‘싸구려[安價]’다. 라는 것이 위 인용문의 요지이다. 이와 같은 혹독한 주장의 근원에 방탕한 육체적(성적) 접촉과 무절제한 쾌락으로 상징되는 연애에 대한 가공할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 연애를 연애로 서술하면 그것은 싸구려이고 도색문학이다. 쾌락 자체가 불순하고 비도덕적인 탓이다.

결국 연애는 연애가 아니어야 한다. 혹은 항상 그 이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테면 남녀 간의 내밀한 연애라는 기표조차 반드시 민족의 위대성이라는 기의를 겨냥해야만 한다. 물론 그러한 관념 안에는 사적인 것에 대한 공적인 것의 우월함이라는 가치론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사로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41) 이무영, 「전쟁과 문학」, 『전선문학』 제5호, 1953. 4. 6면.

예컨대 정비석의 작품 「간호장교」에서 전선으로 떠나는 '이건호'가 연인인 '선주'에게 이별을 선언하면서 다시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조국과 민족만을 위해 최후까지 용감히 싸우다 죽을 결심시오!”라고 비장한 각오를 전한다. 이 대목에서 '선주'가 사사로운 연애 감정에 이끌려 '이건호'에게 애걸복걸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선주'는 그래서 “이선생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어요!”⁴²⁾라고 응답하는 게 옳다.

서두를 차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저 사족이다. 뒷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전선으로 떠난 애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선주'는 간호장교가 된다. 눈을 잃고 상이군인이 된 '이건호'는 국군병원으로 이송된다. 거기서 상실감에 젖어있던 '이건호'는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는 간호장교 '선주'를 극적으로 만난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행복해한다. 일종의 멜로드라마 수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애정이 사사로운 게 아니라 공적임을 드러내기 위한 적잖이 낮간지러운 트릭일 뿐이다.

자식에 대한 육친의 사랑마저도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라면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무영의 단편 「바다의 대화」가 이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생명의 은인인 '창건 모'가 주인공 '박대위'에게 다음처럼 애원한다.

“남편도 없고 오직 창건이 하나뿐입니다. 그 자식마저 죽인다면 나도 차라리 죽고야 말겠습니다. 군인 보고 이런 말 하는 나부터가 몹쓸 년이지만, 어떻게 씨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식을 뺄 수만 있다면 난 술장사가 돼도 좋고 양갈보가 돼도 좋고 이 자리서 칼을 물고 엎드려진 대도 웃으며 죽겠습니다. 네 장교님! 비용으론 금비녀 한 개가 있습니다. 네 장교님!”⁴³⁾

자식인 '창건'을 어떻게든 징용에서 면제해 달라는 부탁이다. 남편을 잃고

42) 정비석, 「간호장교」,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37면.

43) 이무영, 「바다의 대화」, 『전선문학』 제3호, 1953. 2, 16면.

의지할 피붙이라고는 오직 아들 하나뿐인 어미로서는 자식을 손 놓고 사지로 내몬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딱한 어미의 사연과 모정 앞에서 ‘박대위’는 곤혹스럽다. 군인 된 도리로 치면 그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마땅하다. 한데 은인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나몰라할 처지도 못 된다.

그러나 ‘박대위’의 내적 고뇌는 뜻밖에 사라진다. 다행히 ‘창건’은 그의 어미와는 달리 육친의 정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미 입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입대를 만류하는 자신의 어미 탓에 입소 시간을 지체하게 된 ‘창건’은 부대에 그 경위를 전달해달라며 ‘박대위’에게 다음처럼 말한다.

“사정 이야길 하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대로요. 한 시 배로 가면 다섯 시는 도착된다니까 여덟 시간쯤 늦는 셈인데 기실은 제가 과부의 외아들이라서 무식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되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다면 설마.”⁴⁴⁾

하나 남은 피붙이나마 어떻게든 건사해보겠다는 어미의 모정은 결국 무식한 것으로 치부된다. 반면 사사로운 육친의 정마저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지닌 ‘창건’은 아름답고 위대한 애국 청년의 표상으로 추앙받는다. 결국 피붙이에 대학 집착이나 애정도 그저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애국정신이라는 공적인 사랑에 대한 의무 속에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인 셈이다.

『전선문학』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대립구도는 예서 멈추지 않는다. 선과 악의 대립, 혹은 정신(영혼)과 육체(물질)의 이원성은 뚜렷한 공간 분할의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곧 전선(戰線) 대 후방(後方)이라는 공간적 대립이 이 세계의 정신적 이원성을 물질적으로 지탱해주는 것이다. 후방은 전선에 비해 열등한 곳이고, 그곳의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후방에서 지속되는 열등한 삶에 대한 원한과 저주의 목소리가 『전선문학』에 가득하다.

김이석의 단편 「분별」에서 피난지 부산은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무리들이 판치는 곳으로 묘사된다. 한때 교원생활을 했지만 기회주의적인 장사치로 변

44) 같은 글, 17면.

해버린 주인공 '응섭'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오직 "운을 놓치지 않고 돈을 긂어 잡아 남처럼 질탕하게"⁴⁵⁾ 사는 것뿐이다. 결국 피난지 부산은 냉혹한 계산적 이성과 사리사욕만이 그득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간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단적인 예로 김송의 「불사신」을 보자. 주인공 '영철'은 전선에서 죽을 고비를 세 차례나 넘긴 후, 삼년 만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부산을 찾는다. 한데 안타깝게도 찾아가 그곳은 감격도 감동도 없는 실망스러운 공간일 뿐이다. 부자인 형 '영욱'은 축첩을 거듭하며 무성의하게 삶을 살아가는 속물로 변했다. 여대생인 동생 '영숙'은 화려한 사교계 여왕의 품모를 흉내 낸다. 마치 "외국인 상대의 유엔마담"⁴⁶⁾처럼 요사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사태는 연인 '초희'가 가난한 생활 탓에 다방레지와 요릿집 접대부를 전전하다가 결국 형 '영욱'의 첩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영철'은 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받쳐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식의 자괴감에 빠진다. 그래서인지 그가 '초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다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퇴폐적이다.

실내가 밝았지만, 푸른색 커튼을 드리워서 칙칙한데 구석 면에서 일본 유행가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란 대개 안색이 창백해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활기(活氣)라든가 건강미는 보이지 않았다.⁴⁷⁾

전선이 내뿜는 활기와 건강미 대신에 어떤 잡스러움(=혼중성)이 피난지 부산을 점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극장마다 행렬을 지은 구경꾼들, 도로마다 매연을 토하며 달려가는 자동차들, 상점마다 화려하게 진열된 외국제 상품들. 결국 '영철'에게 후방은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보다 열등하고 저속한 공간이다.

45) 김이석, 「분별」,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56면.

46) 김송, 「불사신」, 『전선문학』 제5호, 1953. 4, 79면.

47) 같은 글, 82면.

4. 사제들의 출현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선과 악의 대립이 내면화되고, 이어 정신(영혼)과 물질(육체)이라는 가치론적 또는 존재론적 대립이 전선과 후방이라는 공간적 대립과 서로 맞물리고 접합되면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분할의 체계가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흡사 신학적인 질서와 체계를 닮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앞서 논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전선문학』의 텍스트들을 떠받치고 있는 위계적인 이항대립 체계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일련의 가치들을 배열하여, 도식으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선(善)						
A : 전선(戰線) = 정신(영혼)						
미(美)	초월	위대	우월	충만	건강	행동
↑(이행, 고양, 상승)						
B : 후방(後方) = 물질(육체)						
추(醜)	세속	안이	열등	결핍	병리	도피
악(惡)						

필자는 이후 서술에서 편의상 전선이나 후방이라는 용어 대신, A 혹은 B라는 기호를 사용할 것이다. 위의 도식에 따르면 일체의 행동적 에너지와 의식적 지향은 반드시 A로 수렴돼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선문학』의 작가들이 처한 위치(혹은 좌표)가 다분히 문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른바 B에서 A로의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지만, 실상 작가들은 대부분 B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비록 종군(從軍)이라는 형태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서로 공유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그런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B이지만, 거기에 있지 않다는 역설을 어떻게든 해소해 내야만 한다.

작가들의 역설은 물론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이를테면 대중들을 B에서

A로 인도(계몽)하는 자로 규정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A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거니와, B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도 성립된다. 예컨대 죄로 물든 지상에서 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제와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자처하게 되면, 그러한 역설은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은총이나 기회로 변모한다. 여기서 작가들의 관념적 과격성이 다른 말로 경험 없는 욕망의 증폭 현상이 발생한다.

작가들은 이제 B에서 A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 또는 그것을 대변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순교자적 자기희생의 열망을 가장한 작가들의 자기 우월성과 체계모니적 사유의 패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종군작가단의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있는 구상의 「종군작가단 2년」이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상이 보기에도 종군 작가단의 위치는 그야말로 애매하다. 전선에 다녀온 기록을 그 다음날 바로 기사화할 수 있는 신문기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효용이 일단 떨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선의 소재가 작품화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상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인들이 보기에 작가들의 종군 활동은 “무능, 무력, 무효, 무의미한”⁴⁸⁾ 것으로 비춰지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독자양합주의 탓에 관능적인 연애물이 아닌 바에야 자신들의 종군기나 전선을 소재로 한 작품을 출판계가 나서서 실어줄 리도 만무하다. 더욱이 종군작가는 어용작가 그리고 그 작품은 비예술이라는 통념이 문단에 팽배해 있다. 얽친 데 덮친 격으로, 군에서 준 출동비라고 해봐야 여비도 안 되는 것은 차치하고, 자비를 들여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다보니 가내 경제가 엉망이고, 결국 아내들의 바가지는 일상다반사다.

요컨대 자신들은 세인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질시와 냉대(淸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A의 가치를 B에서 대변하는 자이고 어떤 억압과 고난에도 A의 가치를 실현

48) 구상, 「종군 작가단 2년」, 『전선문학』 제5호, 1953. 4, 58면.

해야할 신성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무는 다음처럼 실로 비장하기까지 하다.

작가들의 흥중과 그 뇌리 속에는 분초를 쉬지 않고 저 비명 속에 저가는 자유조국의 용사의 그 모습과 또 이 세계사적 한국전쟁에서만 현현되고 있는 인류 선악전쟁으로서의 거창한 소재, 이것을 놓치지 못할 결의와 의무감에 불타고 있다.

오직 이 인류 선악전쟁 속에 내재된 처절한 소재를 개작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정신혁명(精神革正)을 기할 자 **우리뿐**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혈맥을 구현시킬 자 **우리뿐**으로 알기 때문에 작가들은 오늘도 내일도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⁴⁹⁾(강조: 인용자)

위 주장의 요점은 간명하다. A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다. 단지 이것이다. 인류니 선악전쟁이니 아니면 정신혁명이니 민족의 혈맥이니 하는 거창한 어휘들을 주워섬기지만, 한낱 수사이다. 따라서 예외적 개인 곧, 선민(選民)만이 B를 향해 다음처럼 준열하게 꾸짖을 수 있다. 그것은 우월감의 표시이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자의 거만함이기도 하다.

문화계에 노출되고 있는 저 실신상태의 쾌락주의와 퇴폐주의 속에서 오직 각성과 결의를 가진 종군작가들은 오직 마지막 남은 조국의 기수가 아닐 수 없다.⁵⁰⁾

구상의 글을 통해서 순교자적 자기희생의 열망에 감춰진 작가들의 대중들에 대한 경멸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종군작가들은 사제들이고, 그들의 임무는 A의 이름으로 B를 단죄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물론 B에 속해 있는 자신들에 대한 엄정한 자기비판(고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B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지 않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49) 같은 글, 58면.

50) 같은 글, 59면.

우선 윤고종은 중군기에서 소박하고 겸허하며 애국심에 불타있어 성스러운 장병들에 대해서는 숙연해지는 데 비해 자신은 결단성이 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무위무능(無爲無能)하게 입과 붓끝으로만 가장 고답적인 세계에 사는 듯이 자처하던 무리”⁵¹⁾라며 서슴없이 자신을 깎아 내린다. 굳이 푸코(M. Foucault)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기고백의 진정성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고백할 내용이 딱히 있어서가 아니라, 고백을 하기 위해 그 내용(=죄)을 의식적으로 고안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다.

게다가 필자는 우월한 것에 비해 자신은 열등하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심리의 근원에 사태의 심각성과는 어떻게 해도 관련이 없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위와 같은 심리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기만적인 순환 또는 자리바꿈을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열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항상 자기 우월성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동시에 이들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사태 앞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열등한 자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그 사태로부터 비껴 설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한편 이현구는 「문화전선은 형성되었는가」에서 문화인들이 주체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글의 말미에 다음처럼 주장한 바 있다.

아직 우리가 지키는 이 고지-문화적-는 너무나 지나친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지 하나하나를 우리 정신력으로 강화해가자. 시야를 달리 하라 국척(躑躅)된 자여! 그 무기력 저미(低迷)에서 탈곡(脫穀)하라. 그대 바로 앞에 천금의 광망(光芒)을 지닌 진주의 옥석이 묻혀있나니 산만과 자기분열의 껍질을 벗어버리자. 간단없는 적의 포탄만이 아니요, 우리의 무능도연(無能徒然)을 노리는 정신적 오염(五列)의 준동(蠢動)인 것이다.

경계하자. 장비(裝備)하자.

문화전선에 이상 없는가?⁵²⁾

위의 인용문은 전쟁기에 문인들이 단결하여 문화전선을 튼튼하게 구축하

51) 윤고종, 「전선에서 돌아와서」, 『전선문학』 제1호, 1952. 4. 38면.

52) 이현구, 「문화전선은 형성되었는가」,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7면.

자는 식의 의례적인 슬로건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선동이다. 외부의 적을 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부의 적을 색출하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B에 있는 ‘제5열(=간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선문학』 텍스트를 채우고 있는 작가들의 고해성사는 자신들이 제5열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백의 장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 외에 다른 대상을 반드시 지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작가들은 A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라는 우월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다. B에 대한 부정과 증오의 강도가 여기서 결정된다.

우선 김팔봉은 당시의 문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신문과 잡지를 지목한다. 그가 보기에 청년들의 감각은 퇴폐적이다. 그들이 하는 농담이란 것이 고작해야 “진부한 육체적인 것 뿐”이다. 결국 그들은 “청신한 감각에서 경이할만한 정신”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저속한 독물(讀物)”⁵³들에 노출된 까닭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상 또한 한국사회가 무기력한 이유로 작가들의 무성의함을 지목한다. 그들이 일체를 거치면서 “은둔적이요 도피적이요 현실초연적인 습성”⁵⁴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탓이다.

내부의 적들로 지목된 예들은 이 외에도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A와 B의 가치론적 대립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소설들에 등장하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들은 모조리 내부의 적들이다. 앞서 살핀 바 있는 소설 「바다의 대화」에서 육친의 정에만 얽매었던 ‘창건 모’뿐만 아니라, 슬픔을 슬픔으로 묘사해서 방기환에게 섭섭하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혹평을 받았던 곽하신과 같은 작가도 내부의 적이라면 적이다.

따라서 B에 대한 부정과 증오의 강도에 비례해서 A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찬양과 미화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선문학』

53) 김팔봉, 「정신의 빈곤」, 『전선문학』 제4호, 1953. 3, 6면.

54) 구상, 「문학정신과 혁명정신-삼일절 기념 강연초고」, 『전선문학』 제4호, 1953. 3, 7면.

의 상당한 텍스트들이 이른바 미담(美談) 혹은 가화(佳話)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거개가 군인이다.

『전선문학』에서 ‘전쟁과 교양 특집’이 기획된 의도는 “군인이 오늘날 지니는 사생관이나 사회관이나 인간관은 바로 총후국민생활의 의표(儀表)”⁵⁵⁾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가와 군인 특집’의 목적은 “오늘의 자유조국 투쟁에 혈투하고 있는 군인을 새로운 인간입상(人間立像)”⁵⁶⁾으로 대중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미담들을 모조리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총후국민생활의 의표 또는 새로운 인간입상의 덕목들로 작가들이 제시한 것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박, 겸허, 애국심, 투지, 깨끗함, 성스러움, 봉사, 희생, 헌신, 무념무상, 인정, 가식 없음, 직무에 충실함, 명예욕 없음, 규율, 기품, 청렴결백, 책임감, 기타 등등.

이 덕목들이 과연 실제 군인의 그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인간형의 전범들을 모방(송양)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작가들이 제시한 행위의 지침 또는 일종의 도덕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이원성, 육체적인 것(물질적인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어떻게든 삶이 연명되는 현세적 공간으로서의 B에 대한 저주는 모두 이 도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형식을 니체(F. W. Nietzsche)는 이미 노예의 도덕이라고 명명했거니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금욕적 이상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할 수 있음’ 또는 ‘힘’을 ‘하지 않음’이다.⁵⁷⁾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반드시 능동적인 것으로, 주체의 의지나 자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55)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14면.

56) 『전선문학』 제3호, 1953. 2, 72면.

57) 니체, 김정현 역, 『니체전집 14 :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7, 377 ~ 386면 참조.

『전선문학』의 텍스트들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이 같은 금욕적 이상들이다. 그리고 이 이상들의 핵심에 ‘고통은 올바른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명제가 뒤섞여 있곤 한다. 이를테면 고통은 낮은 단계(존재)에서 높은 단계(존재)로, 또는 결핍된 것에서 충만한 것으로 완성(고양)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제의인 것이다.

장덕조의 수필 「군인과 여성」이라는 글을 보도록 하자. 이 글의 키워드는 체념(滯念)이다. 그는 이것을 긍정은 아니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경지”⁵⁸⁾이며 “죽음을 긍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군인의 정신이라고 정의한다. 이어 불행은 누구나 싫어하고 기피하지만, 그 앞에서 체념의 정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좀 더 높은 곳에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⁵⁹⁾ 깨달음의 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피학적인 행위들이 즐거운 것으로 권장되기에 이른다.

찬 얼음을 깨뜨리고 뛰어들어가 한중수영(寒中水泳)을 하는 운동가나 즐거운 학창생활을 헌신같이 집어던지고 군대로, 군대로 출선 지원하는 학도병이나 멀리는 산상의 고행을 기뻐하고 화중(火中)의 순교를 사랑한 종교상의 현인들에게 상통할 수 있는 정신적 범열(法悅)인 것이다.⁶⁰⁾

이 피학적인 목소리는 그가 숭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남편이나 자식 또는 연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있을 여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은 가학적인 것이다.⁶¹⁾ 하여간 요점은 고통은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이 목소리는 비단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선문학』에 참여한 작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군인의 목소리를 빌려, 작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전쟁터는 도장(道場)이다!

58) 장덕조, 「군인과 여성」,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26면.

59) 같은 글, 27면.

60) 같은 글, 32면.

61) 물론 이 목소리에는 자신은 숭고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천해도 좋다는 그러나 나는 괜찮다는 안도감이 숨겨져 있다.

“이십년 또는 삼십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고생을 해온 고금의 명승들이 지향한 궁극의 목적은? 한평생 절차탁마의 수양을 하다 일생을 마친 많은 명인들이 지향한 최종의 목적은? 그것은 단 한길뿐, 생사초월 그것뿐이다. 그런 뜻으로 전장은 성스러운 도장이다.”⁶²⁾

이로써 사제들의 임무는 완성된다. B를 저주하고, B에서 적들을 찾아내고, 결국 B에 흐르고 있는 삶에 금욕적 이상이라는 덧을 씌움으로써 말이다. 그들은 한번은 개체들의 슬픔을 배제하거나 치환함으로써, 한번은 개체들을 ‘할 수 없음’의 자유와 능동이라는 환상으로 몰아넣으면서 B에서 A로 이행하기를 끊임없이 독려한다. 그 개체들을 더 큰 슬픔의 거대한 형식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B에 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이다.

5. 나오며

지금껏 필자는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된 『전선문학』의 텍스트들을 슬픔의 배제와 증폭이라는 두 개의 맥락에서 각각 검토했다. 우선 슬픔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한 개체의 고유한 또는 단독적인 슬픔의 자질이 배제되거나 무해한 것으로 위생 처리되는 혹은 그것과는 다른 자질들로 치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타자의 죽음이라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비율의 논리나 등가교환의 체계에 포섭되면서 사물화되거나 관념화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슬픔의 증폭이라는 측면에서, 개체의 다양한 감성을 집요하고 동시에 반복강박적인 슬픔의 거대한 형식 안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 일련의 도덕적이지도 신학적(실은 ‘의사-신학적’)인 메커니즘의 작동을 기술하고자 했다. 이 메커니즘 안에 개체 혹은 집단의 수동적 정서가 광신적인 열정이나 광기로 변환되는 치명적인 계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62) 김장수, 「전우애」, 『전선문학』 제7호, 1953. 11, 86면.

러 심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메커니즘이 니체가 말한 바의 노예의 도덕 또는 금욕적 이상과 같은 슬픈 정념의 형식과 맞닿아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위 두개의 맥락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의도적으로 그 둘을 분리해서 기술했다. 우선 슬픔의 배제라는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타자의 구체적인 실존을 거리낌 없이 또는 무심하게 지워버리려 했던 당시 종군작가들의 윤리적 맹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슬픔의 증폭이라는 측면을 주목함으로써 국민의 전쟁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작가들이 끈질기게 의지했던 집단적인(무의식에 가까운) 이념의 구조를 정후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감성정치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제어 : 전선문학, 감성정치, 슬픔, 배제와 증폭, 풍경, 죽음, 세계의 이원성, 전체주의

<참고문헌>

1. 자료

『전선문학』 제1호, 1952. 4.

『전선문학』 제2호, 1952. 12.

『전선문학』 제3호, 1953. 2.

『전선문학』 제4호, 1953. 3.

『전선문학』 제5호, 1953. 4.

2. 논저

김옥선, 「『전선문학』에 나타난 감정 정치」, 『인문학논총』 제2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03~129면.

김팔봉, 『인민재판 이후』, 『사상계』, 1960. 6.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 제28집, 개신어문학회, 2008, 193~231면.

백 철, 「시대적 우연의 수리」, 『조선일보』, 1938. 12. 2.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월드컵」, 『당대비평』 제20집, 생각의 나무, 2002.

정명중, 「파시즘과 감성동원 - 일제하 '국민문학(國民文學)'에 대한 고찰」, 『호남문화연구』 제4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337~380면.

허 은, 「20세기 총력전 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지주의」, 『한국사연구』 제15호, 한국사연구회, 2010, 227~269면.

홍성민, 「일상성과 감성의 정치학 - 네그리의 다중(多衆)을 넘어서」, 『프랑스문화연구』 제19집, 프랑스문화연구회, 2009, 179~206면.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기모토 다케시, 「총력전의 이율배반」, 『역사문제연구』 제23호, 역사문제연구소, 2010, 283~322면.

- 니체, 김정현 역, 『니체전집 14 :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7,
377~386면 참조.
-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 정영목 역,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 클라우제비츠, 허문순 역, 『전쟁론』, 동서문화사, 2011.
- 후지타 쇼조, 이홍락 역,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 비평』 겨울호, 창작과
비평사, 1995.

[Abstract]

Exclusion and Amplification of Sadness Shown in 『Jeonseon Munhak』

Jeong, Myoung-jung

This study analyzed the texts in the magazine entitled 『Jeonseon Munhak (War Front Literature)』 published in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in 1950's in the context of emotion-politics. Especially, two patterns were intensively examined: how sadness as emotional material is excluded, or amplified on the contrary in them.

First of all, in the respect of exclusion of sadness, the study reviewed the process which the material of individual unique sadness is excluded or sanitized as unharmed, or replaced with other materials. In the process, it proved that how the unique event of others' death is materialized or idealized, getting included in the system of the ratio logic or exchange of equivalents.

In the other hand, in the respect of amplification of sadness, what was studied is the operation of moral and theological mechanism that drives various individual emotions into an enormous form of sadness persistent and also repetition-compulsive.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chanism can not help containing a fatal moment that individual or collective passive emotion can be converted into fanaticism or madness.

Those two contexts are inseparable, but they are intentionally divided in this description. First, the study dealt with war writers' ethical blind spot in that they tried removing others' specific existence with no restraint and inattentively, by reviewing the exclusion of sadness. And then, by reviewing the amplification of sadness, this tried reading the structure of collective,

nearly unconscious, ideology symptomatically on which writers strongly depended to draw people to war mobilization. It was also expected that doing that would allow us to reconstruct totalitarianism or nationalism ideology in the context of emotional politics.

【Key words】 : War-front literature, Emotion-politics, Total war, Sadness, Exclusion and amplification, Scenery, Death, Slave morality, Dualism of the world, National mobilization, Totalitarianism

정명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7호

전자우편 : molecula@jnu.ac.kr

이 논문은 2012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